



RaonAtti
9th SiemReap team 5월





목차



소개



5월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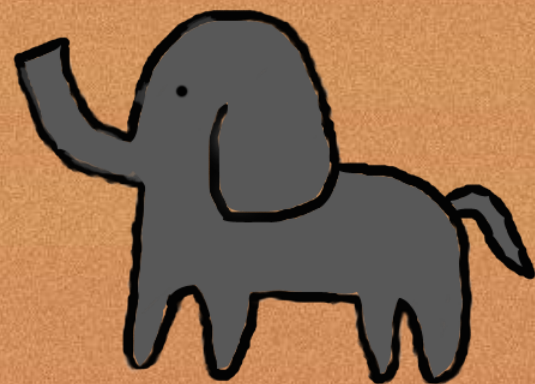
6월의 계획



사진전



소개





사랑의열매
Community Chest of Korea

식구소개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퍼!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박시호(빵퍼 회계 담당매니저)

펄리(빵퍼의 패셔니스타)

샤로얏(21살 애엄마)

시퀸(보파 여자친구)

첸니(출산한지 3달)

아론(한국어 열공쟁이)

샤론(샤로얏 동생, 장난쟁이)

보파(유일한 청일점, 시퀸남친)

간짜냐(취미는 노래)





문화소개

툑툑이라고 부르는 오토바이의 뒤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수레를 연결한 교통수단이 있다. 톱 톱이는 우리나라의 택시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탑승 전에 반드시 요금을 흥정해야 나중에 요금으로 인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모토는 일반 오토바이를 지칭하는데, 오토바이 뒤에 타는 것을 모토라고 부른다. 비교적 톱툑이 보다 싸고, 적은 인원이 빨리 가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툑툑이보다 모토가 더 빠르고 재밌어~



문화소개

길거리 음식-미차

캄보디아에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즐겨먹는 음식은 바로 미차이다. '미'는 면, '차'는 볶음, 즉 미차는 볶음면이다. 미차를 조리하는 과정을 보면 라면과 채소, 어떤 곳은 고기와 계란까지 들어간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미차를 파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노점마다 조리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가격은 1\$로 매우 저렴하며 양도 많아서 한 끼 식사로 적절하다. 다른 캄보디아의 음식처럼 미차에도 조미료가 매우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 조미료의 맛이 그리울 것 같다.

얼음을 담아 먹는 맥주

캄보디아에서는 맥주를 먹을 때 얼음이 담긴 잔에 담아 마신다. 아마도 냉장고가 없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얼음을 넣으면 맥주 본연의 맛을 잃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얼음 맥주는 맛이 있다





문화소개, 아이들 놀이

최근 유행하는 놀이 ^{HOT!}

최근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미친듯이,
그리고 폭발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프놈끄라움 신종놀이이다.
성역할을 구분짓는 설명은 아니지만,
십중 팔구 아니 백이면 백 남자아이들만 하는 놀이이다.



게임참가를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 아이템은 평소에 신는 슬리퍼를 동그런 모양으로 올려
한쪽면에 압정들을 박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아이템은
타일바닥에서 꽤나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참가 유저들은 이 아이템을 발로차서 벽에 1회 튕겨낸 뒤
상대방의 슬리퍼조각을 맞춰야한다. 그것이 승리조건이다.

우리나라의 4구당구와 비슷한 원리.



문화소개, 아이들 놀이

이 게임에 참가하기전

게임유저들은 코딱지만한 플라스틱 모형들을 배팅한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면 유저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한다.

게임의 1차 공략은 가위바위보를 이기는데에 있다.

가위바위보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유저들은 손가락을 튕겨 플라스틱 모형들을 정해진 구역안으로 밀어넣어야한다.

구역안으로 밀어넣은 플라스틱은 본인의 소유가 되는데
어느정도 플라스틱을 획득했다 싶으면 참여유저는 그만하겠다는 의미로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쳐야한다.

하지만 탐욕이 과하여 플라스틱이 단 한 개라도
구역밖으로 나가게되면 획득한 플라스틱모형은 전부 사라지게 된다.

과유불급.

세상사는 이치가 담겨있는 참으로 단순하지만 심오한 게임이 아닐 수 없다.



문화소개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대하게 열린다. 축의금도 걷고, 피로연도 진행한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 결혼식장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결혼 대행 업체(?)를 불러, 친구의 집이나 자신의 집 앞에 핑크색 천막과 의자, 테이블을 설치한 후 결혼식을 진행한다.

또,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마을이 조용할 시간이 없는데, 그 이유는 커다란 스피커를 여러 대 가져다 놓고 풍악을 울리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가본적이 없지만, 한가지 특징은 알고 있다.

상이 난 집은 3일 동안 마을이 찌렁찌렁 울리게 곡을 한다. 곡을 하지 않을 때는 오묘한 음악을 틀어 놓는다.

장례식 때 울리는 곡은 포켓몬스터 게임의 보라시티 배경음악과 비슷한 것 같아.



캄보디아에 처음 온 이틀동안, 장례식 곡소리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었지





문화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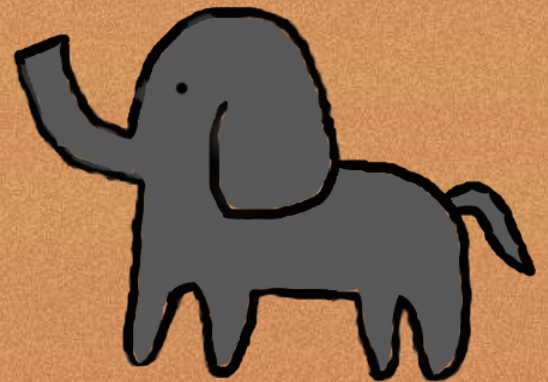
캄보디아에는 **쫄츠남**이라는 명절이 있다.
'쫄'이라는 글자는 '부딪히다.'라는 뜻이고 '츠남'
'은 '해, 년'을 뜻한다. 년과 년이 부딪히는 날로
쫄츠남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의 '설날' 과 유
사하다.

쫄츠남이 되면 연휴를 3일 동안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 춤을 춘다. 또, 상을 집앞
에 차려 놓고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모신다. 또,
'happy new year' 문구가 적힌 것들로 집 안
팍을 꾸민다.

해가 지면 노래를 틀고 마을사람들이 모여 춤
을 추는데, 무언가(의자나 나무)를 가운데 놓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



5월의 활동





인간의 조건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최저임금을 알게 된 우리들은 소비 생활을 돌아보고 그들의 입장과 생활을 좀 더 온몸으로 느껴보고자 인간의 조건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45불로 한 달 살기는 일주일 만에 실패했다. 현지에서 45불로는 매일 먹는 밥값과 매일 쓰이는 교통비만 충당하기에도 버거웠다.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록, 시작한 목적과 활동이 변질되어 나타났다.

여행공금을 핑계로 개인 용돈을 사용했고 회의를 핑계로 카페에서 공금을 사용했다. 이성을 잃고 남의 과자를 탐하고 훔쳐먹는 단원도 있었다.

45불로 한달 살기는 팀원모두 실패했지만, 한 달을 살아본다는 취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을 충분히 느꼈기에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 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불편이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지 깨달았어. 실천을 하기로 마음먹기까지가 제일 힘들지만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이성을 잃고 간사님의 과자를 훔쳐먹은건 나였지만 ^^;;



중간평가

수원 YMCA 황용원 총장님과 이아나
간사님이 캄보디아에 방문하셨다.
아쉽게도 24일은 캄보디아의 휴일이라
크마에 스텝들이 모두 함께 하지는 못하였
다.

그래도 센터에 출근한 한국 스텝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간평가 보고회를 하였고,
아피들이 다일 센터에서 지내는 모습과
쌀라아피 수업하는 모습을 보셨다.

또한 25일 토요일에는 한글학교에 오서
서 아피들의 활동을 보고 가셨다.

활동 이외의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
고 반가운 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중간평가 피드백

쌀라아피.

지금까지 우리 씨엠립 팀원은
쌀라아피를
개인이 맡아 개인의 책임하에
운영한다고 생각했다.
그로인해 쌀라아피에 대해
팀적으로 논의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사무국 측에선 각 반이라도 개인이 아닌 아피 네명이 함께 운영하는 쌀라아피가 되었으면 한다는 코멘트를 하였다. 팀원들 모두도 이에 대한 피드백에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서로의 수업을 참관하며 개인의 쌀라아피가 아닌, 우리의 쌀라아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록남기기.

지금까지 우리 씨엠립 팀원은
우리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별다른 기록을 유지하지는 않았다.

사무국에선 차후 기수들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기록 유지가 꼭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였다. 단순한 인수인계 작업이 아닌 우리들이 그들을 알아가는 하나의 활동이 될 수도 있을거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사무국으로부터 양식을 받은 상태이며 팀원별로 각자 기록유지를 시작하였다.

찌리웅 새로운 반 출석부 / 라온아미 9기 장은지(TEARY)

5월 1주		5월 2주		5월 3주		5월 4주	
5/3	5/6	5/8	5/10	5/11	5/20	5/22	5/24
	○	○	○	○	○	○	
김나							
	5/3	5/6	5/8	5/10	5/11	5/20	5/22
피어	○	/	/	/	○	○	○
	5/3	5/6	5/8	5/10	5/11	5/20	5/22
랑	○	/	○	○	○	○	○
	5/3	5/6	5/8	5/10	5/11	5/20	5/22
피음	○	/	/	○	○	○	○
	5/3	5/6	5/8	5/10	5/11	5/20	5/22
찰리	/	/	/	○	○	○	○
	5/3	5/6	5/8	5/10	5/11	5/20	5/22
찰리	○	/	○	○	○	○	○
	5/3	5/6	5/8	5/10	5/11	5/20	5/22
소카	○	/	○	○	○	○	○
성경 1/2							
				</			



중간평가 피드백

환경축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환경축제.
하지만 아직 쓰레기통을 비롯한
제반시설이 부족한 프놈프라움에서
이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의미있겠냐는
의견이 팀내에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사무국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며, 이리한 사무국의 피드백과 우리 팀내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환경축제는 잠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대신 제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이나, 조금 더 기본적인
어떠한 활동을 생각해볼 예정이다.



중간평가 피드백

한글학교 빵.

한국의 많은 아이들도 그리하겠지만
이 곳 한글학교를 다니는 한인아이들 중에도
개중에 빵을 먹다 버리거나
빵을 던지며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다.



사무국은 이 한인아이들이 캄보디아 사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며 성인으로 자라났을 때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엠립팀은 아이들이 빵을 버리는 원인을,
유아신체구조적,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최대한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뒤
그와 관련된 교육과 어떠한 행동을 할 계획이다.

2. 소등(Earth Hour)

하루 한 시간 모든 불을 끄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환경 캠페인이다.

프놈끄라움 마을의 경우, 이 집 저 집을 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나, 제대로 동참되지 않았다. 불을 끄기로 한 시간은 주민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이었고, 비가 많이 왔던 것도 이유였던 것 같다.

시엠립 숙소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2층만 진행되었는데, 비교적 잘 진행되었다.



장소 : 프놈끄라움 마을 , 시엠립 숙소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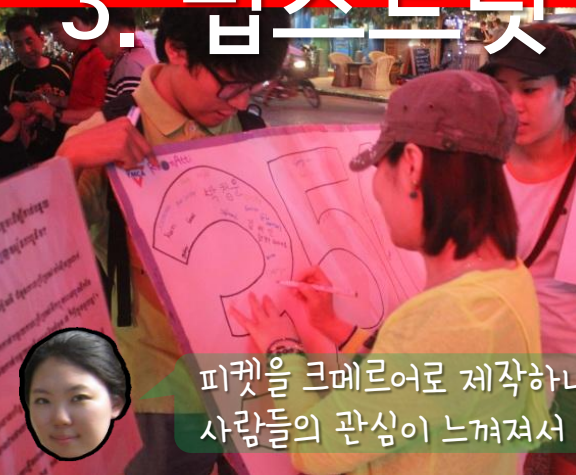
날짜 : 2013년 6월 4일

시간 : 20:00 ~ 21:00



비교적 탄소소비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펍스트리트에서 현지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후 시간대와 밤 시간대, 2번으로 나누어 캠페인을 하였다. 영어와 크메르어로 피켓을 제작하여 350ppm의 의미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요구하였다. 동참의 방법으로는 '350' 모양의 피켓 안에 서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위하여 손수건을 선물로 주어 휴지대신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펍스트리트 캠페인



피켓을 크메르어로 제작하니까 크메르 사람들의 관심이 느껴져서 좋았어.



350PPM

장소 : pub street
날짜 : 2013년 6월 5일
시간 : 13:00 ~ 15:00, 19:00 ~ 21:20

4. 한글학교

2013년 6월 8일 토요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350ppm에 대해 알리자는 취지로서 한글학교 학생들에게도 캠페인을 하였다. 평소 수업태도가 산만하기 때문에, 캠페인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350ppm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2,3학년들은 각자의 학용품에 이름을 씌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다. 5,6학년들은 '나만의 350피켓'을 제작하여 사진을 찍음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하필 이날 유일한 4학년 성현이가 학교를 오지 않아서, 350ppm활동 동참을 못했어. 아쉬워.



350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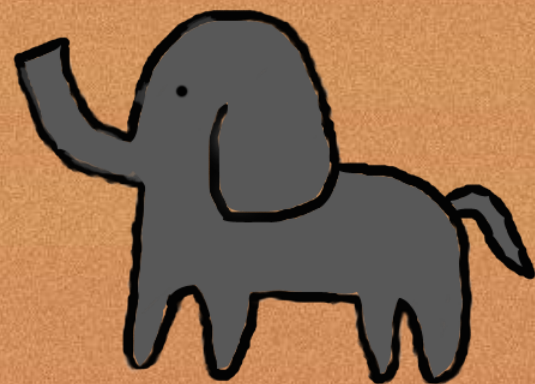




바탐방 여행



6월의 계획





6월의 계획

5월의 계획

5월에 계획했던 봉사자 가이드라인 제시와 NGO 탐방을 하지 못하였다. 6월에 봉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논의되어 왔던 동영상 만들기 예정이다. 또한 NGO를 조사하여 15일 이전에 논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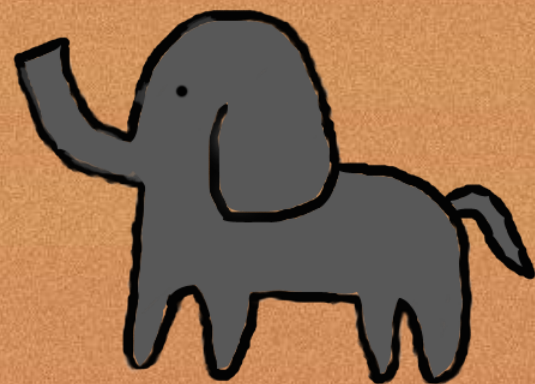
백일장

아피 8기가 시작한 활동으로 취지가 좋다고 판단하여, 9기도 이어서 하기로 하였다. 6월 중 백일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선은 다일 공동체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대상은 프놈프라움, 쯡크니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기보다, 했던 활동들을
다듬고, 만나왔던 사람들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



사진전















77
77

